『中國學』第66輯 (2019.03)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19.66.66.6
pp.093-112 ISSN : 1229-9618

대화협력원리를 통한 表謙副詞 “竊”과 “伏” 고찰*
—『史記』의 대화문을 중심으로

백종이**

【목 차】

1. 서론
2. 竊와 伏에 대한 선행연구
3. 그라이스(Grice)의 대화협력원리
4. 表謙副詞 “竊”과 “伏”의 언어적 함축효과
5. 번역시 表謙副詞 “竊”과 “伏”의 재해석 가능성
6. 결론

【초록】

본 논고는『史記』중「本紀」,「世家」,「列傳」의 대화문을 대상으로 하여 그라이스(Grice)의 대화협력원리 이론을 통해 화자의 화용양상을 살펴보았다. 협력원리로 화자의 대화를 분석해 보면 화자의 의도가 표면적 사전중심의 의미만이 아닌 이면의 함축적 정보에 의해 청자에게 효과적인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함축은 화용론에서는 특히 중요한 개념이다. 기존의 통사론과 의미론이 문장 혹은 표면적 연구에 머물러 있었다면 화용의 관점에서는 발화를 통해 화자가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 더 큰 비중을 둔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기존의 연구와 번역에서 청자에 해당하는 독자에게 제공된 表謙副詞 “竊”과 “伏”의 부족한 함축적 정보를 알아보고 고전원문의 직역이 아닌 자연스러운 한국어 번역으로써의 대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키워드】表謙副詞, 竊, 伏, 그라이스, 협력원리,『史記』, 화용론

* 학계에서 表謙副詞를 포함한 겸손을 나타내는 명칭은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에 학자들은 謙辭, 謙語, 謙詞 등의 명칭들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필자는 王力 선생과 북경사범대학 李運富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여 본 논고와 관련된 연구대상을 “謙詞”, “表謙副詞”,“謙敬副詞”로 명명하기로 하겠다. (王力, 1984,『王力古漢語字典』, 北京: 中華書局, 第7字, p.865.) 또한, 본 논고는 實詞 앞에 위치하여 狀況語의 용법으로 사용되는 表謙副詞 분석의 관한 논문으로 명칭과 관련된 정확성은 논하지 않기로 하겠다.

** 단국대학교 외국어대학 중국어과 초빙교수 (baizhi@dankook.ac.kr)

1. 서론

表謙副詞는 동사와 형용사에 해당되는 술어 앞에서 전체 문장의 상황을 연출하는 추임새 역할을 한다. 이것은 사회적 습관을 이용한 화자의 전략적인 발화행위이다. 화자가 갖는 고의적 의도를 대화협력원리를 통하여 청자에게 어떠한 효과적인 소통이 전달되는지 살펴보겠다. 『史記』는 司馬遷에 의해 통일된 문자와 문법으로 집약되어 있어 언어상 매우 규범적이며, 「本紀」, 「世家」, 「列傳」은 대화가 대신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하였다.

의사소통은 화자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청자에게 자신의 목적을 투영시키기 위한 일종의 역동적 행위이다. 특히, 『史記』의 맥락을 보면 그 당시 제도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그 특징과 의미를 확장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통사론과 의미론 그리고 전통적 수사론을 통해 표면적 연구로만 진행되어 왔다. 화용론으로의 접근은 대화의 표면적 연구뿐 아니라 이면의 함축적 의미를 통해 화자가 청자에게 전달하려는 의도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 따라서 과정이 무시된 표면적 중심의 연구는 특히 『史記』와 같은 역사서를 연구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대화언어의 사용현상으로서 입체적인 화용론 시각의 연구가 시급하다.

본 논고는 우선 『史記』 중 인물 간 대화의 表謙副詞가 술어 앞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구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더 나아가 화용의 관점인 대화협력원리를 통해 어떠한 함축 과정의 기제가 일어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라이스의 대화원리는 의사소통에서 언어적 협조를 목표로 둔 화자와 청자의 대화 중심 이론이다. 즉, 화자와 청자가 귀속된 환경의 사회적 협조는 두루 다루고 있지 않다. 表謙副詞가 이러한 사회적 맥락의 공손예절과 관련된 특징이 크므로, 대화이론으로의 접근은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점과 그라이스의 대화협력원리가 순수하게 화자와 청자의 대화를 이해하고 사회적 협조에 접근하는데 기초가 된다는 점을 착안하여 본 논고에서는 협력의 원리에 우선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그리고 언어적 협조와 사회적 협조를 모두 한 편의 학술논문으로 다 다루기에는 편폭이 허락되지 않을 뿐더러 논지 전개의 일관성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필자는 본 논고를 출발점으로 하고 사회적 협조－예를 들면 언어행위이론, 체면이론, 예절의 법칙 등－와 관련된 논고는 추후 연구한 후에 비교 종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表敬副詞와 관련된 논고는 현재 진행 중이며, 수정 보완하여 다음 호에 기재하기로 하겠다.

2. 竊와 伏에 대한 선행연구

학계에서 지정한 副詞의 11가지 분류[1]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謙敬副詞중 表謙副詞는 대표

1) 부사는 時間, 程度, 狀態, 範圍, 否定, 疑問, 推度, 判斷, 連接, 勸令, 謙敬의 11가지로 분류된다. 楊伯

적으로 敢, 請, 竊, 備, 恭, 謬(繆) , 叨, 忝, 伏, 猥이다.[2] 이 중『史記』의 대화문에 자주 출현하는 表謙副詞는 竊, 伏이다. 아래 사전적 용법과 정의를 살펴보기로 하자.

1) 竊

謙詞로서 竊의 사전적 의미와 학자들의 해석은 아래와 같다.

“절(竊)은 얕다(淺)의 의미이다. 구멍(穴)과 쌀(米)을 나타낸다. 쌀을 벌레가 훔치거나 이것을 행하는 도적 등이 갖고 달아나는 형상을 절(竊)이라 한다.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바르지 않게 됨을 일컫는다. 도적이 보물과 대궁(大弓)을 훔쳐가는 것을 의미한다. (『설문해자주』)[3]

【고한어자전】[4]
① 도둑질하다.
② 명사로 활용되어, 도둑질을 일삼는 사람을 가리킴.
③ 불법적으로 분수에 맞지 않게 갖는 행위.
④ 특히 무능력하고 덕 없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가리킴.
⑤ 부사로 활용되어, “암암리에”, “몰래”의 의미를 나타냄.
⑥ 겸경부사(謙敬副詞)

【한어대자전】[5]
① 자신을 나타내는 겸사(謙詞)
② 도적, 거지
③ 찬탈하다. 자신의 물건이 아닌 것을 부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받거나 갖는 것을 가리킴.
④ 몰래, 불법적으로, 겸사(謙詞)로 많이 사용됨.

【현대한어사전】[6]
① 훔치다.
② 정당한 행위로 획득하거나 점거하는 비유의 방식으로 쓰임.
③ 몰래
④ 겸사(謙辭)로 자신의 행위를 규정하는데 사용되며, “몰래”, “불법적으로”의 의미를 나타냄.

“동사 앞에 위치하여 화자 본인의 바르지 않은 행동을 감히 나타내며 겸손을 표시한다.” (『고

峻·何樂士,『古漢語語法及其發展』, 北京: 語文出版社, 2013, pp.226-227.
2) 洪成玉,『謙詞敬詞婉詞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2012, pp.34-47.
3) “竊、淺也. 从穴米. 米自穴出. 此盜自中出之象也. 盜自中出曰竊. 所謂亂在內爲宄也. 盜竊寶玉大弓.”, 许慎(撰), 段玉裁(注),『說文解字註·米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p.1332.
4) ①盜竊 ②活用為名詞, 從事盜竊活動的人 ③引申為非法非分而取 ④特指無能無德而居其位 ⑤副詞, 暗暗地, 私自 ⑥又為謙敬副詞,『王力古漢語字典』, 北京: 中華書局, 1984, 第7字, pp.864-865.
5) ①用作表示自己的謙詞 ②盜賊, 乞丐 ③篡夺. 指非其有而取之; 不當受而受之 ⑤私下;私自. 多用作謙詞, 偷偷地,『漢語大字典』, 第2字 第5卷, p.2914.
6) ①偷 ②比喻用在正當的手段獲取、占據 ③偷偷地 ④謙辭, 用於稱自己的行為, 表示私自、私下,『現代漢語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2005, 第五版, p.1050.

한어 어법과 발전』)[7]

"부사의 역할을 하며, "남몰래"의 의미를 갖는다. 의견을 제시한 쪽이 그 제시한 논의나 견해가 미숙한 개인적 의견임을 나타낸다. (『고대한어교정』) [8]

그러므로 위의 의미와 용법을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화자(도적)가 스스로 무엇을 갖고 나가는 것
② 화자(도적)가 어지럽히거나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일컬음
③ 화자(도적)가 보물(대궁-예궁)등의 가치 있는 것을 빼돌림

竊은 곡식창고의 쌀에 붙어 기생하는 벌레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빼앗아 달아나는 행위 등으로 볼 수 있다. 즉, 쌀(가치가 있는 대상)의 주인은 따로 있다. 화자는 사회적인 가치를 갖는 지배층(주체자, 청자)이 아닌 피지배층이다. 어느 상황에 있던 중심이 되지 못하는 제2의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竊은 대부분 피지배층이 쓰는 모범적인 表謙副詞로 사용되고, 때때로 지배층이 상황에 따라 자신을 이인자로 보이기 위한 선택적 기제로 활용되었다.

2) 伏

謙詞로서 伏의 사전적 의미와 학자들의 해석은 아래와 같다.

"맡다; 직무를 맡은 사람, 신하가 임금을 모시는 일, '맡다'의 司는 시중 '들다'의 伺이다. 일반적으로 직무를 맡은 자가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것을 이른다. 伏伺는 복종하여 섬김(服事)의 뜻이다. 굽실거리다(俯伏)와 은복하다 (隱伏)의 뜻으로 파생되었다. (『설문해자주』)[9]

【고한어자전】[10]
① 엎드리다. 잠복하다. 굴복하다. 습복하다.
② 없애다, 장소, 차 수레 받침(수레 앞턱에 가로 댄 나무)
③ 부화하다.

【한어대자전】[11]

---

7) "用於動詞前, 表示說話者本人不敢經直行動之意以示謙遜.",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 北京: 語文出版社, 2013, p.360.
8) "作副詞, 有"私下"之意, 以示發表意見的一方所發議論或見解乃個人不成熟之私見.", 李國英·李運富,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古代漢語教程』, 2007, p.127.
9) "司也.:司者、臣司事於外者也. 司今之伺字. 凡有所司者必專守之. 伏伺卽服事也. 引伸之爲俯伏. 又引伸之爲隱伏.", 許慎(撰), 段玉裁(注),『說文解字註·人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p.1523.
10) ①趴. 引申為潛伏; 又為屈服; 又為慴服 ②去掉; 處; 車軾 ③孵卵, 『王力古漢語字典』, 北京: 中華書局, 1984, 第8字, p.19.
11) ①伏天; 伏日. 分为初伏、中伏、末伏, 统称三伏 ②俯伏; 趴下 ③身体前倾靠在物体上 ④潜藏; 埋伏 ⑤

① 복날. 초복, 중복, 말복의 삼복.
② 부복하다, 망가지다.
③ 신체가 물체 앞으로 접근하여(기대여) 치우치다.
④ 감추다, 매복하다.
⑤ 두려워하다 혹은 복종(服)과 같이 굴복하다, 순종하다 혹은 죄를 범한 행위, 실패 행위를 인정하는 의미이다.
⑥ 바닥에 바짝 엎드려 벌벌 떠는 순종의 모양새
⑦ 낮은 자세로 내려가다, 숙이다.
⑧ 길들이다, 제압하다.
⑨ 온전하게 잘 지켜 지탱해 나가다.

【현대한어사전】[12]
① [동] 신체가 물체를 향하여 접근 쏠리다.
② [동] 아래로 숙이다.
③ [동] 감추다, 숨다.
④ [명] 초복, 중복, 말목의 통칭
⑤ [동] 굴복하다.
⑥ [동] 굴복시키다.

“서신(書信)에서 많이 볼 수 있고, 겸손과 존경의 의미를 나타낸다.”(『고한어 어법과 발전』)[13]
“부사의 역할을 하며, “남몰래”의 의미를 갖는다. 대부분 신하가 임금에게 경의를 나타내는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 (『고대한어교정』)[14]

그러므로 위의 의미와 용법을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청자보다 낮은 자세로 무언가하다.
② 엎드리는 행위의 화자는 낮은 지위이거나 떳떳하지 못하다.
③ 엎드리는 행위의 화자는 수동성을 갖는다.
④ 청자에게 낮은 자세를 보여주기 위한 전략적 의도를 갖는다.

부사로서 伏을 실행하는 화자는 “엎드리는” 혹은 “엎드려야하는” 전략적 의도에서 출발한다. 즉, 화자는 실권자(청자)에게 고의적으로 자신의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 伏을 확인기제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화자는 伏으로 수동성을 갖는 함축적 의미를 일으키고 청자에게 전략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따라서 화자는 대부분 모범적인 表謙副詞 伏의 발화에서 사회적으로 피지배층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드물게 맥락에 따라 사회적 지배층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通“服”. 屈服, 顺从. 承认罪行或失败 ⑥伏伏腊腊(极其顺服的样子) ⑦低下去 ⑧降伏,制伏 ⑨保持,『漢語大字典』, 第1字 第1卷, p152.

12) ①[動]身體向前靠在物體上 ②[動]低下去 ③[動]陰藏 ④[名]初伏, 中伏, 末伏的統稱 ⑤[動]屈服 ⑥[動]使屈服,『現代漢語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2005, 第五版, p.397.

13) 楊伯峻·何樂士,『古漢語語法及其發展』, 北京: 語文出版社, 2013, p.360.

14) 李國英·李運富,『古代漢語教程』,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7, p.127.

자신을 피지배층으로 설정하는 선택적 기제로 활용되었다.

3. 그라이스(Grice)의 대화협력원리

그라이스(H. P Grice)는 '커뮤니케이션의 논리(logic of communication)'를 언어 사용의 원리로 수립하기 위해 1975년 대화협력원리(Cooperative Principle)를 제안했다. 화자와 청자의 의사소통 과정에는 일정한 원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는 "당신의 대화상의 기여가 그것이 일어나는 장면에서 당신이 관여되는 대화의 용인된 목적이나 방향에 의해 요구된 것과 같은 것이 되게 하라."[15]의 원리에서 아래의 격률[16]을 제안했다. 『史記』의 대화문을 통해 살펴보자.

1) 대화 원리 (4가지 격률)

① 질의 격률 (Maxim of Quality)
: 당신이 말하는 것이 진실한 것이 되도록 하라.
(Try to make your contribution one that is true)
ⓐ 당신이 거짓이라 믿는 것은 말하지 마라.
(Do not say what you believe to be false)
ⓑ 당신이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것을 말하지 마라.
(Do not say that say for which you lack adequate evidence)

이와 관련하여 다음 예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十一年, 周太史儋見獻公曰: "周故與秦國合而別." (「秦本紀」)
[헌공 11년, 주나라의 태사 담이 헌공을 만나서 말했다: "애초에 주나라와 진나라는 하나였으나 나누어졌습니다."]

위 (1)의 周 나라와 秦 나라에 대한 발화는 보편적 역사의 사실로 그 근거가 충분한 진술이기 때문에, 함축<화자는 周나라와 秦나라가 하나였다고 믿거나 나누어졌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의 의미를 일으킨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燕國有勇士秦舞陽, 年十三, 殺人, 人不敢忤視. 乃令秦舞陽為副. 荊軻有所待, 欲與俱 ; 其人居遠未來, 而為治行. 頃之, 未發, 太子遲之, 疑其改悔, 乃復請曰: "日已盡矣, 荊卿豈有意哉？" (「刺客列傳」)
[연(燕)나라에 진무양(秦舞陽)이라는 용감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13살 때 사람을 죽여 감히 그를 쳐다보는 이가 없었다. 그래서 태자는 진무양을 형가의 조수로 삼았다. 한편, 형가(荊

15) Peter Grundy 著, 박철우 譯, 『화용론의 실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p.196.
16) 이성범, 『소통의 화용론』, 한국문화사, 2015, pp.117-118.

軻)는 함께 갈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형가의 행장이 다 꾸려졌다. 형가가 한참 동안 출발하지 않자, 태자는 그가 시간을 끈다고 여기며 혹시 마음이 바뀌어 후회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다. 그래서 (태자는) 거듭 요청하며 이렇게 말했다: “날짜가 벌써 다하였습니다, 형경(荊卿)께서 무슨 다른 뜻이 있습니까?”]

위 (2)의 대화문은 진실된 질문으로 가정되기 때문에 함축<태자는 모른다>, <태자는 확인하고 싶다>, <태자는 형경이 다른 의도(뜻)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의 의미를 일으킨다.

② 양의 격률 (Maxim of Quantity)
ⓐ 당신이 말하는 것에 필요한 만큼 정보 내용이 있도록 하라.
(Make your contribution as informative as is required)
ⓑ 당신이 말하는 것에 필요 이상으로 정보 내용을 담지 마라.
(Do not make your contribution more informative than is required)

이와 관련하여 다음 예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3) 彈其劍而歌曰: “長鋏歸來乎, 食無魚.”(「孟嘗君列傳」)
[그 칼을 두드리면서 : “긴 칼아 돌아가자, 식사에 생선 반찬이 없구나.” 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위 (3)의 화자는 청자에게 적절하게 제보하였기 때문에 양의 하위격률 ⓐ에 의해 함축<화자(풍환 선생)의 식사가 충분하지 않다>의 의미를 일으킨다.

③ 관계의 격률 (Maxim of Relation)
: 적합한 말을 하라. (Be relevant)

이와 관련하여 蘇奏이 韓王에게 상황을 진술하고 계책을 시행하게 하려는 특화된 대화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4) “臣竊為大王羞之”(「蘇奏列傳」)
[대왕을 위하는 신(臣)으로서 부끄러울 것입니다.]

위 (4)에서 함축<진나라를 섬기지 않아야 나는 부끄러운 마음을 느끼지 않는다>의 의미와 함축<나에게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왕은 합종의 의견을 따라야한다>의 의미를 일으킨다.

④ 양태의 격률 (Maxim of Manner)
: 명료하게 말을 하다. (Be perpicuous)
ⓐ 애매한 표현을 피하라. (Avoid obscurity of expression)

이와 관련하여 高祖에 대한 불만을 품은 신하들이 趙王을 설득하는 대화문을 살펴보면 아

래와 같다.

(5) 說王曰: “夫天下豪桀并起, 能者先立. 今王事高祖甚恭, 而高祖無禮, 請為王殺之！”(「張耳陳餘列傳」)

[그리고 왕을 설득하여 이렇게 말했다. “대체로 천하 호걸들이 함께 일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먼저 왕이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께서 고조(高祖)를 몹시 공손하게 섬기시지만 고조는 예의가 없습니다. 대왕을 위하여 그를 죽이도록 해 주십시오.”]

위 (5)에서 함축 <고조는 왕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제거하여 왕의 자격이 갖추어진 당신을 왕으로 세워야한다>의 의미를 일으킨다.

ⓑ 중의성을 피하라. (Avoid ambiguity)
ⓒ 간단하게 말하다. (불필요한 장광설을 피하라.)
(Be brief) (Avoid unnecessary prolixity)

위 ⓑ와 ⓒ의 하위 격률에 해당하는 대화문은 다음 절 “격률위반”, “격률회피”, “격률무시”에서 설명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므로 여기서는 술회하지 않겠다.

ⓓ 순서대로 말하라. (Be orderly)

이와 관련된 대화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6) “異日韓王納地效璽, 請為藩臣, 已而倍約, 與趙、魏合從畔秦, 故興兵誅之, 虜其王.”(「秦始皇本紀」)

[“예전에 한(韓)나라 왕은 땅을 바치고 옥새를 내주면서 번신(藩臣)이 되기를 청했다가 얼마 안 되어 약속을 어기고 조(趙)나라, 위(魏)나라와 연합하여 진(秦) 나라를 배반했으므로 진나라는 군대를 일으켜 그들을 주살하고 한나라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위 (6)은 순차적인 사건의 진행 표상으로 함축<이러한 순서대로 상황을 처리하고 판단하라>의 의미를 일으킨다.

2) 격률 위반 (violating a maxim)

격률 위반이란 그라이스(1975:9)의 용어를 빌리면 “비현실적인(unostentatious)”방식으로, “조용하고(quiet)”, “잘 띄지 않게(covert)” 격률을 안 지키는 경우를 말한다.[17] 이는 화자가 모범적인 사회기제를 사용하여 언어적 습관에 따라 격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아래 『史記』의 대화문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범저(范雎)가 수고(須賈)의 잘못한 행동을 꾸짖는 대화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7) 이성범, 2015, 『소통의 화용론』, 한국문화사, pp.133-135.

(7) 范雎曰: “汝罪有幾？”
[범저가 말했다: “네 죄가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曰: “擢賈之發以續賈之罪, 尚未足.”
[수고가 말했다: “제 머리카락을 모두 뽑아 속죄해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위 (7)에서 범저는 수고의 지난 행동에 대해 그 죄를 묻고 있다. 수고는 몇 가지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이 아닌 죗값의 정도를 답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의성을 피하라”와 “간단하게 말하라”는 양태의 하위격률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수고의 대화는 함축<내가 머리카락 하나하나 뽑으면서 그 수만큼 속죄 하겠다>의 일반적의 의미와 함축<나는 너를 괴롭게 했기에 나 또한 그에 상응하는 초라한 모습으로 굴욕을 당하는 게 충분하다>의 특별한 의미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수고의 반성하는 태도를 범저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된다.

3) 격률 무시 (flouting a maxim)

격률 무시는 화자가 격률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것으로 격률 위반과 다르게 청자가 화자의 발화가 비협조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화자가 공손 기제를 사용하여 청자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고의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대표적인 격률무시이다. 아래『史記』대화문을 통해 살펴보자.

(8) 平原君曰: “先生處勝之門下幾年於此矣？”
[평원군이 말했다: “선생은 저(勝)의 빈객으로 있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毛遂曰: “三年於此矣.”
[모수가 말했다: “3년 되었습니다.”]
平原君曰: “.....今**先生**處**勝**之門下三年於此矣, 左右未有所稱誦, **勝**未有所聞, 是**先生**無所有也. **先生**不能, **先生**留.”(『平原君虞卿列傳』)
[평원군이 말했다: “지금 선생은 제(勝) 빈객으로 삼년이나 있었지만 제 주위사람들은 선생을 칭찬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저도 선생에 대하여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선생에게 이렇다 할 재능이 없다는 뜻입니다. 선생은 같이 갈 수 없으니 남아계십시오.”]

위 (8)의 화자(平原君)는 楚나라와 합종을 맺기 위해 함께 대동할 빈객으로 청자(毛遂)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설득하는 대화이다. 상대방을 부정하는 대화에서 화자는 관습적인 공손기제 “先生”과 “勝”을 사용하고 대화를 진행한다.[18] 화자는 일반적인 대명사를 사용하여 자신과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고 높임과 낮음의 존재성을 들어 격률을 무시하고 있다. 즉, 관

18) “先生”은 代詞性 敬語로 사회계층의 제약을 막론하고 상대방에게 존경의 의미로 사용되었다.(遠庭棟(1994:93)指出: “‘先生’作為尊稱, 從古至今未變. 從戰國到明清, ‘先生’的使用範圍愈來愈廣.”) “勝”은 평원군의 이름으로 고대 중국사회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겸손의 의미를 나타냈다.(遠庭棟(1994:36)指出: “名是從小被長輩呼來喚去, 待成年時‘冠而字之, 敬其名也(《儀禮·士冠禮》)’. 所以一般是長輩對晚輩稱名, 同輩之間稱字. 戰國以後就成為一種比較嚴格的禮製, 即敬稱、尊稱、下對上稱字, 自稱、謙稱、上對下稱名.”)

계의 격률을 고의적으로 무시하여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지위의 보편적인 적합성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여기서 함축 <당신은 나에게 귀중한 빈객이다>의 의미가 일어나고, 이것은 청자에게 화자의 공손하고 근엄한 의지를 전달하는 효과를 준다.

(9) "臣常有**狗馬病**, 力不能任郡事, 臣願為中郎, 出入禁闥, 補過拾遺, 臣之願也." (『汲鄭列傳』)
[신(臣)은 항상 狗馬병이 있어 한 군을 맡을 능력이 없습니다. 신은 바라옵건데 중랑(中郎)이 되어 궁중에 드나들면서 폐하의 잘못된 부분을 깁고 흘린 것을 줍고 싶습니다.]

위 (9)의 화자(臣)는 자신이 중랑으로 남아야 한다는 효과적인 메시지를 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狗馬病"을 사용하여 고의적으로 대화의 격률을 무시하고 있다. 즉, '간단하게 말하라'는 하위의 양태의 격률을 무시하고 있다. 화자는 자신을 하찮은 짐승으로 치부하여 함축 <저는 짐승들이나 걸리는 병에 걸리는 하찮은 존재로 자격미달이다>의 의미가 일어나고, 청자에게 겸손하고 명확한 의도를 전달하는 효과를 준다.

4) 격률 회피 (opting out of a maxim)

격률 위반은 화자가 자연스런 습관이나 감정적 행동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는 대화인데, 이와는 달리 격률의 회피는 화자가 일부러 청자의 질문 등의 의사표현에 반응하지 않고 피하는 경우이다. 아래 『史記』의 대화문을 통해 살펴보자.

(10) 秦王跽而請曰: "先生何以幸教寡人？"
[진(秦) 나라 왕이 무릎을 꿇고 청하며 말하길: "선생께서는 무엇을 과인에게 가르쳐 주시겠소?"]
范雎曰: "**唯唯**."
[범저가 말했다: "글쎄요, 글쎄요."]
有間, 秦王復跽而請曰: "先生何以幸教寡人？"
[듣고, 진나라왕은 다시 무릎을 꿇고 청하며 말하길: "선생께서는 과인에게 무엇을 가르쳐주시겠소?"]
范雎曰: "**唯唯**." (「范雎蔡澤列傳」)
[범저가 말했다: "글쎄요, 글쎄요."]

위 (10)은 꼭두각시 秦나라 왕과 범저의 대화이다. 여기서 범저는 秦나라 왕에게 "글쎄요"의 회피적 표현을 사용하여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秦나라 왕에게 여러 가지 추측을 난무하게 만들어 범저 자신을 더 능력이 있는 인재로 보이게 하는 함축적 의미를 일으킨다. 또한 秦나라 왕에게 말을 아껴 다그치게 함과 동시에 발생된 겸손의 기제가 秦나라 왕에게 묵시적인 메시지로 전달된다.

이와 같이 대화협력원리를 통하여 화자가 고의적으로 활용한 表謙副詞 "竊"과 "伏"의 의사소통 과정을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4. 表謙副詞 “竊”과 “伏”의 언어적 함축 효과

『史記』 중 「本紀」, 「世家」, 「列傳」의 대화문에서 實詞로서의 사용을 제외한 虛詞로서 表謙副詞의 사용은 “竊”이 총 94차례, “伏”이 총 4차례이다. 본장에서는 우선 구조적 그리고 의미적 양상을 토대로 하고[19] 이어서 대화협력원리를 통하여 화자와 청자의 소통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해당하는 예문아래에 기존의 한국어번역을 추가하였으나 5장의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竊과 伏에 대한 번역은 따로 하지 않고 원문그대로 표기해두었음을 밝힌다.

1) 竊

『史記』 중 表謙副詞로서 竊은 설득화행과 약속화행에서 주로 운용되고 있다. 그에 따른 대화의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래 예문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11) 張儀既出, 未去, 聞蘇秦死, 乃說楚王曰: “秦地半天下, 兵敵四國, 被險帶河, 四塞以為固. 虎賁之士百餘萬, 車千乘, 騎萬匹, 積粟如丘山. 法令既明, 士卒安難樂死, 主明以嚴, 將智以武, 雖無出甲, 席卷常山之險, 必折天下之脊, 天下有後服者先亡. 且夫為從者, 無以異於驅群羊而攻猛虎, 虎之與羊不格明矣. 今王不與猛虎而與群羊, 臣竊以為大王之計過也.”……“ 大王嘗與吳人戰, 五戰而三勝, 陣卒盡矣 ; 偏守新城, 存民苦矣. 臣聞功大者易危, 而民敝者怨上. 夫守易危之功而逆彊秦之心, 臣竊為大王危之.”

[장의는 옥에서 풀려나 초(楚)나라를 떠나기 전에 소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초나라 왕을 이렇게 설득했다. “진(秦) 나라의 영토는 천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병력은 4나의 병력과 맞먹으며,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황하가 띠처럼 둘러쳐져 있어 사방이 막힌 천연의 요새이고, 호랑이처럼 용맹한 군사가 100만여 이고, 전차가 1000승이나 되면, 기마가 만 필이고, 식량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법령이 엄격하여 병사들은 어려운 것도 편안하게 여기고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며, 현명하고도 준엄하며, 장수는 지혜롭고도 용감하여 병력을 내지 않고도 상산의 요새를 석권하여 천하의 척추를 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하의 제후 가운데 남보다 늦게 복장하는 자는 먼저 망할 것입니다. 또 합종에 참가하려는 나라들은 양떼를 몰아 사나운 호랑이를 공격하는 꼴과 다르지 않습니다. 호랑이와 양은 서로 적수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한데도 왕께서는 사나운 호랑이와 손잡지 않으시고 양떼 편에 섰습니다. 신은 왕의 계책이 竊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대왕께서는 이전에 오(吳) 나라 사람과 싸운 일이 있는데 다섯 번 싸워 세 번 이겼지만 싸움에 나선 병사를 모두 잃었고, 한쪽 구석의 신성을 지키느라고 백성만 고달픕니다. 신(臣)은 공이 크면 위험에 빠지기 쉽고 백성이 고달프면 윗사람을 원망합니다. 위험에 빠지기 쉬운 공을 지키느라 강한 진(秦) 나라의 비위를 거스르는 것은 신(臣)이 竊 생각하건대 왕께 위험한 일입니다.]

屈原曰: “前大王見欺於張儀, 張儀至, 臣以為大王烹之 ; 今縱弗忍殺之, 又聽其邪說, 不可.”

[굴원(屈原)이 말했다: “전날 왕께서는 장의(張儀)에게 속으셨습니다. 신(臣)은 장의가 오면 왕이 그를 삶아 죽이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차마 그를 죽일 수는 없다 하더라고 또 다

19) 자세한 출현 양상은 결론에서 언급하였다.

시 그의 간사한 말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懷王曰: "許儀而得黔中, 美利也. 後而倍之, 不可." (「張儀列傳」)

[회왕(懷王)이 말했다: "장의를 용서하고 검중을 얻는 것은 큰 이득이오. 한번 약속한 이상 그것을 어겨서는 안 되오."]

위 (11)은 연횡과 관련된 張儀와 초나라 懷王의 비교적 긴 대화의 일부이다. 전체 대화를 살펴보면, 張儀가 옥중에서 풀려나고 마지막으로 懷王을 설득하고자 대화를 전개한다. 張儀는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懷王의 마음을 사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진술과 의견을 언급한다. 하지만 張儀는 다소 초조하고 담담한 인상을 주면서도 마지막 대화를 종결할 때 臣과 함께 "竊"을 사용한다. 이와 비교하여 屈原은 "竊"을 사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상황에 사용하지 않는 자극적 기제 "竊"은 두 부류의 함축적 의미를 일으킨다. 즉, 함축<너는 지배층(주인)>, <나는 피지배층(손님)>, <내가 너보다 못한 존재>의 일반적 의미와 함축<너는 피해자>, <나는 가해자>, <너는 경직된 존재>, <나는 유연한 존재>의 특별한 의미가 생성된다. 이것은 '중의성을 피하라'는 양태의 하위격률을 무시한 것이다. 張儀는 자신이 중의적인 표현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竊을 사용한다. 張儀는 피지배층이며 懷王은 지배층이므로, 張儀는 懷王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일면으로 보면 懷王은 고정적 대상이며 張儀는 행동을 취하는 유연한 대상이다. 즉, 懷王은 미천한 존재의 책략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혹은 조정될 수밖에 없는) 허울적인 존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張儀는 竊을 사용하여 예의를 지키면서도 한편으로는 懷王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자신의 메시지를 보다 잘 전달할 수 있다.

(12) "雖然, 臣竊以為陛下天然之聖, 寬仁之資, 而誠以天下為務, 則湯武之名不難侔, 而成康之俗可復興也." (「吳王濞列傳」)

[비록 이와 같을지라도 신(臣)이 竊 생각해 보면 폐하께서는 나면서부터 성덕을 갖추셨고 너그럽고 인자한 자질을 가지고 계시니 진실로 천하를 다스리는 일에 정성을 다하신다면 탕(湯)왕이나 무(武) 왕 같은 명성을 얻는 일이 어지럽지 않고, 또 성(成) 왕이나 강(康) 왕 때와 같은 풍속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위 (12)는 서악(화자)이 흉노정벌에 관해 효무제(청자)를 설득하는 표현화행의 일부분이다. 서악은 대화의 시작을 진술화행과 제안화행으로 진행하고 종결에서 "竊"을 사용하여 감언이설로 효무제를 평가한다. 화자는 우선 '폐하는 나면서부터 성덕을 갖추었고', '너그럽고 인자한 자질'이라는 언급으로 '진실만을 말하라'는 질의 격률을 무시했다. 사람은 갓 태어나서 그 자질을 바로 알기란 어렵다. 보편적인 진리와 진실을 무시하는 발화이다. 그리고 화자는 "竊"을 판단행위를 나타내는 以為 앞에 언급하여 전체 대화의 늬앙스를 강조하는 효과를 주었다. 구조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한 "竊"을 첨가하여 '간단하게 말하라'는 양태의 하위격률을 무시했다. 이것은 불필요한 장광설로 인한 과장의 표현 방식으로 자신의 제안적 행위를 강조하는 함축의 의미를 일으킨다. 즉, 서악은 "竊"을 사용하여 자신이 취약한 존재임을 묵시적 메시지로 전달하고 효무제를 극진하게 고무시킨다. 따라서 화자의 대화는 겸허하고 당돌한 태도를 명확히 하는 효과를 갖는다.

(13) 秦王飮酒酣, 曰: “寡人竊聞趙王好音, 請奏瑟.”趙王鼓瑟.

[진(秦) 나라 왕은 술자리가 즐거워지자 이렇게 말했다: “과인은 竊 조(趙) 나라 왕께서 음악에 뛰어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문고 연주를 부탁드립니다.”조 나라 왕이 거문고를 뜯었다.]

秦御史前書曰:“某年月日, 秦王與趙王會飮, 令趙王鼓瑟.”

[진 나라 어사(御史)가 나와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에 진 나라 왕이 조 나라 왕을 만나 술을 마시고 조 나라 왕에게 거문고를 연주하도록 했다.”]

藺相如前曰: “趙王竊聞秦王善為秦聲, 請奏盆缶秦王, 以相娛樂.”

[그러자 인상여(藺相如)는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 :“조 나라 왕께서는 진 나라 왕께서 진 나라 음악을 잘하신다고 竊 들었습니다. 분부(盆缶)를 진 나라 왕께 올려 서로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秦王怒, 不許. (「廉頗藺相如列傳」)

[진 나라왕은 화를 내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 (13)은 秦王이 趙王에게 제안을 하는 대화로 시작된다. 趙王이 두려워하며 秦王과 만나기를 꺼려 하지만 藺相如의 설득으로 끝내 자리를 갖게 된다. 여기서 秦王은 趙王에게 굴욕감을 주기 위해 대화를 시작한다. “聞趙王好音”이라는 기본구조로 보면 격률은 충족된다. 하지만 秦王은 동사 聞앞에 부사 “竊”을 첨가하여 고의적 태도를 분명히 했다. 즉, 秦王은 竊을 통해 자신의 소심한 태도를 묵시적으로 발생시켰다. 화자(秦王)는 양태의 격률 중 ‘애매한 표현을 피하라’는 하위 격률을 무시했다. 애매한 발언으로 화자의 발화 목적과 “竊”의 함축적 의미는 맥락적으로 충돌된다. 화자는 겉으로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추고자 하지만, 청자(趙王)를 평가해보려는 고의적인 의도와 맞물려 대화는 부정적인 함축의 양상을 갖게 된다. 따라서 竊의 사용은 오히려 상투적인 메시지로 전달되고 청자에게 보다 불편한 인상을 준다.

이어지는 藺相如(화자)의 대화를 살펴보면, 화자는 “……竊聞……” 의 구조로 발화하여 趙王을 대변한다. 즉, 화자는 “竊”을 거듭 사용하여 양태의 격률과 동시에 ‘당신이 말하는 것에 필요이상으로 정보 내용을 담지 마라’라는 양의 하위격률을 무시했다. 화자는 청자(秦王)가 발언한 “竊”을 모방적으로 활용하여 과도한 함축적 겸손의 의미를 일으키고 동시에 이것은 청자를 평가하는 확인 기제로 작용한다. 따라서 秦王은 趙王에게 묵시적으로 전달했던 부정적인 메시지를 되돌려 받고 진노하여 상대방의 허락에 응하지 않는다.

2) 伏

『史記』 중 表謙副詞로서 伏은 진술화행과 설득화행에서 주로 운용되고 있다. 그에 따른 대화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래 예문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14) 代王曰: “奉高帝宗廟, 重事也. 寡人不佞, 不足以稱宗廟. 願請楚王計宜者, 寡人不敢當.”

[유항(代王)이 말했다: “고제(高帝)의 종묘를 받드는 것은 중요한 일이오. 과인은 재능이 없어 종묘를 받들 기에는 충분하지 않소. 원컨대 초(楚)왕을 청해 마땅한 사람을 의논하길 바라오. 과인은 감히 감당할 수 없소.”]

群臣皆伏固請. 代王西鄉讓者三, 南鄉讓者再.

[신하들이 엎드려 한사코 요청했다. 대왕은 서쪽을 향해 사양하기를 3번하고, 남쪽을 향해 사양을 2번이나 했다.]

丞相平等皆曰: "臣伏計之, 大王奉高帝宗廟最宜稱, 雖天下諸侯萬民以為宜."

[승상 진평(平) 등이 모두 말했다: "신(臣)들이 伏 생각해봐도 대왕께서는 고제의 종묘를 받드는 것이 가장 적합하며, 천하의 제후들과 만백성도 대왕께 적임자라고 생각할 것 입니다."]

代王曰: "宗室將相王列侯以為莫宜寡人, 寡人不敢辭."

[대왕은 말했다: "종실(宗室), 장상(將相), 여러 왕, 제후들이 과인보다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과인은 감히 사양하지 않겠소."]

遂即天子位. (「孝文本紀」)

[마침내 천자의 자리에 올랐다.]

위 (14)는 유항(代王)이 거듭 황제 즉위를 거절하자 승상 진평 등이 합당한 이치를 진술하며 요청을 진행하는 대화문이다. 우선 유항의 대화를 살펴보면 거절화행으로 "寡人", "不佞", "不敢當"을 사용하여 '당신이 말하는 것에 필요 이상으로 정보 내용을 담지 마라'는 양의 하위격률을 위반한다. 이에 화자(유항)는 자신의 능력을 필요이상으로 최소화하는 함축적 의미를 일으킨다. 동시에 화자가 서쪽과 남쪽을 향해 조심스레 거절하는 행위는 정중한 함축의 의미를 더욱 극대화시킨다. 따라서 이것은 청자의 행위 목적을 확인시켜주는 기제로 활용된다. 즉, 유항의 거절화행에서 그의 수동적 태도는 필요이상의 겸손함이 생성되고, 진평 등의 신하는 이어서 表谦副词 "伏"을 사용하여 설득화행으로 대응한다.

"臣計之"를 기본적 문장 구조로 보면, 진평은 "伏"을 사용하여 유항의 발언과 같이 양의 하위격률을 무시한다. 이와 동시에 '간단하게 말하라'와 '중의성을 피하라'는 양태의 하위격률 또한 무시한다. 화자(진평)는 자신을 지칭하는 대명사 臣을 사용하는 동시에 "伏"을 첨가하여 필요이상의 복종과 수동의 함축을 일으키고 청자(유항)를 부추기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즉, "伏"은 '미천한 짐승과 같은 존재'와 '짐승의 태도처럼 포복하며 충심을 다하는 존재' 등의 보편적이고 특별한 함축적 의미를 일으켜 화자의 발화 목적과 결합한다. 결과적으로 "伏"은 더욱 극진한 공손의 기제로 특화된다. 이렇게 동시 다발적으로 생성된 과도한 겸손의 함축적 효과는 화자의 총체적인 진리를 밝히는 역할을 하고 청자에게 보다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한다.

(15) "丞相臣青翟、御史大夫臣湯昧死言: 臣謹與列侯臣嬰齊、中二千石二千石臣賀、諫大夫博士臣安等議曰: 伏聞周封八百, 姬姓并列, 奉承天子." (「三王世家」)

[승상 신(臣) 장청적(青翟)과 어사대부 신(臣) 장탕(湯)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신들이 謹[20] 열후인 영제(嬰齊)와 중이천 석 및 이천 석의 신하와 간대부(諫大夫) 박사(博士) 신 임안(安) 등과 더불어 의논한 것이 이러합니다: "伏 듣건대 주(周) 나라 800개의 제후를 봉하였는데 왕족 희성(姬姓)이 나란히 황제를 받들었습니다."]

위 (15)는 설득화행으로 황제에게 올린 상소문의 일부분이다. 書信은 신하가 임금에게 여

20) 表敬副詞이다.

러 대안을 제안하는 공적 담화행위이다. 여러 요청과 설득의 기제가 묵시적으로 나열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공적 담화행위는 화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그 형식이 간결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예문에서 화자는 자신의 주관성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려 여러 공손 기제를 사용한다. 특히 대화의 종결에 “伏”을 사용하여 ‘적합한 말을 하라’는 관계의 격률과 ‘중의성을 피하라’는 양태의 하위 격률을 고의적으로 무시했다. 화자는 자신의 앎의 정도와 객관적인 태도를 증명하기 위해 “伏”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이끄는 대화를 진행한다. 이로 인해 화자는 자신의 주관적인 의도를 공손 기제로 대체하여 보편적인 진리임을 강조하는 태도를 발생시킨다.

즉, “伏”은 ‘미천한 자신도 아는’, ‘남들도 다 아는’, ‘지존이라면 당연히 인식해야 하는’ 함축의 의미를 일으킨다. 화자의 사적인 의견이 아닌 것을 강조하며, “周封八百, 姬姓并列, 奉承天子”의 내용을 청자에게 의무성을 갖는 메시지로 전달한다. 그러므로 “伏”은 대화의 중심에서 화자를 수동적이고 위장적인 대상으로 함축시키고 청자에게 공손의 태도를 전달한다.

5. 번역시 表謙副詞 “竊”과 “伏”의 재해석 가능성

『史記』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대표적인 史書이다. 그렇다보니 시중에 번역 출판되어 독자들에게 두루 읽히고 있다. 중국에서는 古代漢語와 달리 現代漢語의 언어적 특징 때문에 表謙副詞에 대한 표현방식이 서툴다.[21] 하지만 한국어는 공손의 표현방식이 발달되어 表謙副詞의 전달의도를 적당히 살릴 수 있다. 이러한 언어적 특징이 있음에도 대다수의 출판물들은 表謙副詞의 사전적 의미 중심으로 번역되어 있다. 따라서 독자들이 원문의 내용을 다르게 이해하거나 접근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본장에서는 4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번역된 문장에서 어떠한 함축적 정보가 누락되는지 살펴보고 재해석을 논하고자 한다. 아래의 表謙副詞 “竊”의 경우를 살펴보자.

(16) 對曰: “臣聞小國之與大國從事也, 有利則大國受其福, 有敗則小國受其禍. 今魏以小國請其禍, 而王以大國辭其福, 臣故曰王過, 魏亦過. **竊**以為從便.” (「平原君虞卿列傳」)

[신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작은 나라와 큰 나라가 함께 일을 하면 이로운 것이 있을 때에는 큰 나라가 그 복을 받고, 일이 잘못되면 작은 나라가 그 화를 입게 된다.’ 지금 위나라는 작은 나라인데 스스로 화를 부르고 있고, 왕은 큰 나라인데 복을 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은 왕께서도 잘못하고 위나라도 잘못하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합종하는 편이 낫습니다.]

위 (16)은 우경(虞卿)이 왕을 설득하는 대화의 일부분이다.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화자는 “竊”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청자에게 보다 강하게 전달하려는 고의적 의도를 갖는다. 화

21) 양백준은 竊을 두 가지 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실사 용법으로 ‘암암리에’,‘남몰래’의 의미를 갖고, 나머지 하나는 허사의 겸사용법이며 현대한어와 대응되는 단어를 찾기 어렵고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竊’作副詞用, 有二種用法. 一種有實義, ‘暗中’, ‘偷偷地’之意; 一種僅是古人自謙之辭, 現代已不用, 所以不必, 也難以對釋.”, 楊伯峻,『古漢語虛詞』, 北京: 中華書局, 2000, p.120.)

자는 대부분 예를 들어 단언하는데 이러한 화자의 비유방식은 청자에게 오히려 주관적 의도가 짙어져 오해를 사기 쉽다. 이에 화자는 자신의 수동성을 묵시적으로 전달하고자 “竊”을 사용하여 ‘중의적 의미를 피하라’는 양태의 하위격률을 고의로 무시한다. 表謙副詞 “竊”은 함축 <난 너보다 못하다>, <너를 위한 점잖은 행동이다>, <나는 충분히 고려한 사항이다>,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동의하는 바이다>의 일반적 의미와 특별한 의미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이렇게 추론된 함축적 맥락으로 보면, “가만히”의 번역은 우경의 메시지와 태도를 독자가 이해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우경의 대화를 “제가 외람[22]되지만 생각해보면 합종하는 편이 낫습니다.”로 표현하면 화자의 공손하고 과도하지 않은 함축의 태도가 더욱 명확해진다.

따라서 제 4장에서 분석한 예문 (11)의 “臣**竊**為大王危之.”는 “제 미천한 생각으로는 이것은 대왕께 위험할 것입니다.”로, 예문 (12)의 “臣**竊**以為陛下天然之聖” 는 “삼가 우람한 제가 생각해보아도 폐하께서는 나면서부터 하늘의 성덕을 갖추셨고”로, 예문 (13)의 “寡人**竊**聞趙王好音, 請奏瑟”은 “과인이 분에 넘치게도 조나라왕의 음색이 뛰어나다고 들었습니다. 연주를 부탁드립니다.”로, “趙王**竊**聞秦王善為秦聲”는 “조 나라 왕께서도 분에 넘치시게 진 나라 왕께서 좋은 소리를 낸다고 들어 알고 계십니다.”의 표현으로 접근하면 인물들의 대화를 이해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다음의 表謙副詞 “伏”의 경우를 살펴보자.

(17) 丞相平等皆曰: “臣**伏**計之, 大王奉高帝宗廟最宜稱, 雖天下諸侯萬民以為宜.” (「孝文本紀」)
["신들이 **엎드려** 생각해봐도 대왕께서 고제의 종묘를 받드는 것이 가장 적합하며, 천하의 제후들과 만백성도 대왕께 적임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18) 今諸侯支子封至諸侯王, 而家皇子為列侯, 臣青翟、臣湯等竊**伏**孰計之, 皆以為尊卑失序, 使天下失望, 不可. (「三王世家」)
[신 장청적(青翟)과 신 장탕(湯) 등이 스스로 **엎드려** 생각해 본 바로는 모두 높건 낮건 순서를 잊지 않게 함으로써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하게 할 것이니,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17), (18)은 신하(화자)가 황제(청자)에게 올리는 상소문의 일부분이다. 이러한 요청의 화행에서 화자는 청자로 하여금 자신의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계획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이행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대화에서 화자는 이행을 위한 노력으로 表謙副詞 “伏”를 사용한다. “伏”을 발언하여 화자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질의 격률, 관계의 격률, 그리고 양태의 격률을 무시한다.

질의 격률에서는 함축<그 대안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내가 마땅히 고려해야 하는 일이다>, <나는 너를 위한 행동을 한다>의 정보를 추론할 수 있다. 관계의 격률에서는 함축 <어떠한 사유의 행위를 엎드려 한다고 묘사하는 표현은 일반적인 말이 아니다>의 정보가 추론된다. 따라서 화자가 자신의 행동을 두드러지게 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함축되어있다. 양태

22) “외람되다”는 표준국어사전에서 “하는 짓이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외람된 말씀이오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에서 화자는 자신의 행동이 과한 것이 염려되어 청자의 오해나 심기를 다스리기 위한 공손의 표지로 종종 사용한다.

의 격률에서는 함축<난 꼼짝도 안하고 엎드려서 사고를 했다>, <난 너를 위한 행동을 했다>, <너와 그 사항은 참 중요한 것이다>, <나에게 너는 큰 존재이다>, <나는 너로 인해 엎드릴 수 밖에 없다>, <난 너보다 못한 존재이다>의 중의적인 함축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伏”으로 인해 생성된 공손의 기제는 청자에게 여러 함축적 정보를 전달하고 화자의 메시지를 보다 잘 전달하는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동사 중심의 행동만을 강조한 “엎드려”의 표현은 독자가 화자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이해하는데 부족하다. 그러므로 “伏”을 “삼가 머리 숙여”[23]로 표현하면 화자의 겸허한 태도를 이해하는데 적절하다.

따라서 제 4장에서 분석한 예문 (14)의 “臣伏計之”를 “저희들이(신들이) 삼가 머리 숙여 살펴보아도”로, 예문(15)의 “伏聞周封八百, 姬姓并列, 奉承天子”를 “제가 삼가 굽어 듣기로는 주(周) 나라 800개의 제후를 봉하여 왕족 희성(姬姓)이 나란히 황제를 받들었습니다.”의 표현으로 접근하면 화자의 의도와 상황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6. 결론

『史記』의 「本紀」, 「世家」, 「列傳」에 출현하는 表謙副詞 “竊”과 “伏”은 화자 행위의 목적을 이끌어주는 狀況語로 전체 문장의 추임새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表謙副詞가 사용된『史記』 대화문의 화행 양상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表謙副詞 “竊”의 화행양상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상 / 부사	통사 구조	의미 방향	화행 유형	문장사용		출현 횟수	화자 사회계층 방향성	출현동사
				방향	감정			
竊	竊+爲	부정	설득	종결	우려	8회	下 → 上	-
		긍정		시작		1회		
	竊+以爲	긍정	약속 진술	시작	찬양 우려	3회		-
		부정	설득	종결	우려	12회		
	竊+심리동사	부정	표현	종결	우려	6회		恐, 怪, 危, 負, 悲
	竊+인식동사	긍정	제안	시작	중립	6회		料, 孰, 案, 量, 度, 知, 勝
	竊+지각동사	긍정	진술	시작	중립	8회		聞, 觀

23) 표준국어사전에 “머리 숙여”의 예문들을 찾아보면, “사람들은 그 고승(高僧)에게 머리 숙여 존경을 표했다”, “그녀는 머리를 숙여 공손하게 선생님께 인사를 했다”, “생방송에 차질이 생긴 점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등과 같이 화자가 청자에게 겸손을 표현하는 기제로 표현화행과 사과화행에서 두루 사용되고 있다.

위의 <표1>을 살펴보면 表謙副詞로서 “竊”은 설득, 제안, 약속 진술, 표현 화행에서 사용된다. “竊”은 대부분 以爲 앞에 위치하고, 청자를 걱정하는 기제로 출발하여 청자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저지하는 함축의 양상을 갖는다. 또한 “竊”은 심리동사, 인식동사, 지각동사를 함께 동반하여 부정과 긍정의 대화 효과를 이끈다. 모두 하급계층이 상급계층에게 사용하는 겸손의 함축기제로 사용되었다. 表謙副詞 “伏” 화행양상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양상 / 부사	통사 구조	의미 방향	화행 유형	문장사용		출현 횟수	인물 방향성 (지위)	출현동사
				방향	감정			
伏	伏+V+O	긍정	진술	시작	중립	2회	下 → 上	計, 聞
			설득		우려	1회		
	伏+V1+V2+O	부정	설득	종결	우려	1회		孰(V1), 計(V2)

위의 <표2>을 살펴보면 表謙副詞로서 “伏”은 진술과 설득의 화행에서 사용된다. 신하와 주군의 맥락에서 화자(피지배층)가 자신의 계책을 청자(지배층)에게 우려의 의도로 접근하여 설득을 목표로 소통을 진행한다. 따라서 “伏”은 동사 앞에서 설득의 표지로 사용되어 겸손의 함축을 일으킨다.

이상 그라이스의 대화협조원칙을 통해 表謙副詞가 사용된 『史記』의 대화문을 살펴보았다. 화자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竊”, “伏”으로 겸허의 흔적을 청자에게 남긴다. 대화에서 表謙副詞의 기제는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고 술어들과 함께 어우러져 함축의 정보를 일으킨다. 즉, 화자는 表謙副詞를 활용하여 고의적으로 대화 격률을 무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의적 태도는 여러 함축의 정보를 일으키고 전체 대화의 양상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청자는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 받게 되고, 화자의 의도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된다.

이와 같이 표면적 의미만이 아닌 화용 의미로의 접근은 고전작품을 더욱 잘 이해하도록 돕는다. 점차 이를 통한 연구가 다분히 진행되어 사전적 함의의 직역이 아닌 언어적 추론과 함축의 의미를 참고한 번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청자에 해당되는 독자들이 『史記』를 포함한 한문고전작품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친숙해지길 희망한다.

【참고문헌】

司馬遷,『史記』, 北京: 中華書局, 2015.
許　愼(撰), 段玉裁(注),『說文解字註·米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王　力,『王力古漢語字典』, 北京: 中華書局, 1984.
『現代漢語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第五版, 2005.
洪成玉,『謙詞敬詞婉詞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2012.
楊伯峻,『古漢語虛詞』, 北京: 中華書局, 2000.
楊伯峻·何樂士,『古漢語語法及其發展』, 北京: 語文出版社, 2013.
李國英·李運富,『古代漢語教程』,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7.
遠庭棟,『古人稱為漫談』, 北京: 中華書局, 1994.
이성범,『소통의 화용론』, 한국문화사, 2016.
최윤선,『비판적 담화분석』, 한국문화사, 2015.
Peter Grundy 著, 박철우 譯,『화용론의 실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H.P. Grice, “Logic and conversation”, in Cole, P. et Mogan, J.L. (eds.),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New York, Academic Press, 1975, pp.83-106.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史記, 表謙副詞, 竊, 伏, 合作原則, 語用
	영문	*Records of the Grand Historian*, Modesty adverb, Qie, Fu, Cooperative Principle, Pragmatics

Pragmatic Study on the Modesty Adverb "Qie" and "fu" in『*Records of the Grand Historian*』Conversation Section

Baek, Jong-Ie

Using dialogue sentences of 「*Annals(本紀)*」, 「*Family of rank(世家)*」 and 「*Collected biographies(列傳)*」 of 『*Records of the Grand Historian(史記)*』 as the target, this paper examines the pragmatic patterns of the speaker through Grice's theory of dialogue Cooperation principle. If analyzing the speaker's dialogue by the Cooperation principle, it can be seen that the speaker's intention is delivered to the listener as effective messages by means of the implicative information behind them, not just the dictionary-centered superficial meaning. Implications are a particularly important concept in the pragmatics. If the existing syntax and semantics remain in the study of sentences or surfaces, the perspective of the pragmatics gives greater weight to the speaker's intention to communicate to the other side through utterances.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lternatives as the natural Korean translation, rather than the literal translation of classical texts, by analyzing that in existing research and translation Modesty adverb "Qie(竊)" and "Fu(伏)" provide scanty information to the readers corresponding to the listeners.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백종이 / 白鍾怡 / Baek, Jong-Ie		
	소 속	단국대학교 외국어대학 중국어과		
	Em@il	baizhi@dankook.ac.kr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9년 02월 19일	심 사 일	2019년 02월 21일
	수 정 일	2019년 03월 15일	게재확정일	2019년 03월 22일